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개화의 살인』 고찰

하 대 후*

芥川竜之介は『羅生門』を発表し、これに引き継いで『鼻』、『芋粥』の、「今昔三部作」を完成するが、この作品の主題は「エゴイズム」である。これを主題にした作品が「今昔三部作」で終わらず、彼の作品に繰り返して現われ、その一例が『開化の殺人』である。

『開化の殺人』の一番目の殺人の話である。北島が十六歳の時、従姉の甘露寺明子に恋心を抱くが、小心のせいで心情を打ち明けることができずに、父親の命令をに従って家業である医学を習うためにロンドンに留学するようになる。この三年間の留学の間に明子は銀行頭取の満村恭平の金権によって彼の妻になる。失恋の慰労をキリスト教の信仰に求めたりしたが、北島は満村の品性の俗悪なのを知り、「不義を懲し不正を除かんとする道徳的憤激」によって彼を毒殺する。

二番目の殺人の話である。一方、明子は、子供がいないので満村が死んだ後、以前からお互いに愛し合っていた本田子爵と結婚する。幸せな友人の姿を見て、また自分の腹中に殺意が芽生えてくることを感じた北島は自分の「精神的破産」を避けるために自殺する。

「イゴイズムのない愛がないとすれば、人の一生ほど苦しいものはない」(中略) 「僕はイゴイズムを離れた愛の存在を疑う。」と、自らの失恋事件を経た後、芥川が書いたこの手紙は、ひたすら官能的な愛だけが存在するこの世の中での男女の関係を、最も正確に表現し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

キーワード : 初恋、片恋、道徳的憤怒、二元的思考、エゴイズム
(첫사랑, 짝사랑, 도덕적 분노, 이원적 사고, 에고이즘)

1. 서론

다음은 아쿠타가와가 연애의 파국 후인 1915년 3월 9일 친구 쓰네도 교에게 보낸 서한의 일부로, 그의 문학의 밑그림 혹은 그의 정신세계의 원 풍경으로 자주 인용된다.

* 경일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

에고이즘이 없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의 일생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주위는 보기 싫다. 자신도 보기 싫다. 그리고 그것을 눈앞에서 보고 사는 것은 괴롭다. 더구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것을 강요당한다. 일체가 신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신의 사역이야말로 조롱거리다.

나는 에고이즘을 떠난 사랑의 존재를 의심한다.

아쿠타가와는 그의 생애에 많은 여성과 교제를 하였고, 그 몇 명에게는 연애 감정을 느낀다. 아쿠타가와와 연애 체험 중에서 첫사랑이자 그의 정신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여성은 요시다 야요이다. 아쿠타가와와 야요이에 대한 생각이 연애로서 자각된 것은 1914년 2·3월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야요이에 대한 연정은 순수하였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하였지만, 아쿠타가와가의 양부모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1915년 초두에 파국을 맞기에 이른다.

파혼의 결과를 미요시 유키오는 ‘이 연애의 좌절은 아마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청춘이 조우했던 가장 인간냄새가 나는, 그리고 통한으로 가득 찬 〈사건〉이었다. 그는 연애가 성취되지 않았던 한보다도 사랑을 잃어버리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난 인간 감성의 본래 모습에 보다 깊이 상처 입은 듯이 보인다’¹⁾고 해석한다. 파혼의 결과 아쿠타가와는 인간의 추함과 에고이즘을 처절하게 느꼈고, 생존의 삭막함을 맛보았으며, 이 때문에 더욱 순수한 사랑을 회구하게 된다.

연애 파국이 있던 해인 1915년 11월에 야나가와 류노스케란 필명으로 『제국문학』에 아쿠타가와와 준 처녀작인 『라쇼몬』을 발표하게 되며, 『코』, 『참마죽』으로 이어지는 소위 「곤자쿠 삼부작」을 완성한다. 이 작품의 주요 주제가 다름 아닌 에고이즘으로, 이는 「곤자쿠 삼부작」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작품에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 한 예가 『개화의 살인』이다.

『개화의 살인』은 작자 자신도 ‘주요코론에 탐정소설을 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상한 것을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

1) 三好行雄(1976) 『芥川竜之介論』 筑摩書房、p.45.

처럼 이 작품을 탐정소설로 볼 수도 있지만, 작자는 오히려 ‘순수한 사랑’ 속에 내포되어 있는 에고이즘의 척결이라는 점에 더 중점을 둔 것 같다. 따라서 작자도 이어서 ‘아무래도 재능을 파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불안해서 좋지 않다. 게다가 탐정소설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으나 탐정소설이 되지 않을 것 같다.(1918. 6. 19 마쓰오카 유즈류에게)’고 작품을 창작하는 심경을 피력하고 있다.

『개화의 살인』 및 『개화의 남편』이라는 작품은 아이들의 꿈처럼, 『우스개』 같은 연애를 『진지』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두 남자의 이야기이다²⁾고 마쓰모토 쓰네히코는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있을까.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화의 살인』 작품 속의 주인공 기타바타케에 의하여 은폐된 에고이즘이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추적한다. 이 작품에서는 아키코를 둘러싼 사랑의 집착이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쓰무라에게, 두 번째는 혼다자작에게, 세 번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키코에게 나타난다. 이런 현상을 작품을 통하여 분석하고, 더불어 나쓰메 소세키의 『그 후』와 『마음』을 비교하여 『개화의 살인』과 이들 작품과의 같고 다를 것을 비교 검토한다.

2. 본론

2.1 『개화의 살인』의 작품 구조

『개화의 살인』은 1918년 7월 15일 발행의 잡지 『주오코론』 제 33년 제8호 임시증간 「비밀과 개방호」에 게재되어 이후에 『가이라 이시』, 『희작삼매』, 『사라의 꽃』,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집』에 수록되었다. 『주오코론』의 소설 란에는 예술적 탐정소설이라고 칭하고,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두 사람의 예술가 이야기』, 사토 하루오의 『지문』, 사토미 돈의 『형사의 집』 등이 동시에 게재되었다. 이 호에 대해서 아쿠타가와는 1918년 7월 25일부 에구치 간에게 보내

2) 海老井英次(1990) 『作品論 芥川竜之介』 双文社, p.127.

는 서한에서 ‘『주오코론』에서는 제일 사토미, 제이 사토다. (단지 이것은 소설부문에서다. 드라마에서는 구메가 있으니까.) 다니자키 씨 등은 서툰 글로 단숨에 내갈겨 써 자신도 아마 자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감상을 토로하고 있다.

잡지 초출에서 『가이라이시』에 수록될 때는 본문에 약간의 이동이 생긴다. 잡지 초출에는 ‘혼다자작 각하 그리고 부인. 나의 마지막에 이르러 지난 삼년동안 마음에 응어리진……’으로 시작하여, ‘당신들에게 항상 충실한 종, 기타바타케 기이치로 드림.’으로 유서를 맺고, 이어서 ‘추백, 이 유서가 쓰인 당시는 아직 작위의 제도가 제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자작이라는 것은 혼다가의 후년의 호칭을 따른 것이다.’라는 한 문장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단행본 수록 시에는 이 부자연스러운 추백의 부분이 삭제되고 그 대신에 유서의 모두부에 ‘아래에 게재한 것은 최근에 내가 혼다자작(가명)에게서 빌려온 고 기타바타케 기이치로(가명) 박사의 유서다.……’로, 현행본에 있는 주기풍의 서문을 설치하여 추백 부분을 흡수하였다. 이 개고에 의해서 초출의 유서체에서 현행의 작자가 빌려온 유서를 베껴서 공표하는 체제가 되었다. 요시다 세이이치는 ‘문체는 메이지 개화기의 번역문학, 풍속문학의 문체를 모방하여, 내용보다도 문장이 불만한 작품이다.’³⁾고 평한다.

이 작품 역시 아쿠타가와가 즐겨 쓰는 액자구조의 작품이다. 보통의 경우 아쿠타가와작품은 액자 안에 들어 있는 ‘그림’보다도 이 액자 부분인 ‘서문’이나 ‘결어’가 작품을 반전시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개화의 살인』에서는 ‘서문’ 부분이 단지 이야기의 도입 부로써의 역할 밖에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작품과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①‘아래에 게재한 것은……’으로 시작되는 서문, ②‘혼다 자작 각하 그리고 부인……’으로 시작되는 본문, ③‘나는 어릴 때부터 사촌 누이동생 되는……’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살인 이야기, ④‘그러나 이는 정말로 몇 달 뿐이었다.’로 시작되는 두 번째 살인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서 문제가 되는 문단은 ③과 ④이다. 앞에서도 서술한

3) 吉田精一(1958) 『芥川竜之介』新潮社, p.122.

바와 같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액자구조 작품에서는 항상 액자인 ①이 문제가 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뿐만 아니라 ②의 경우에도 '내가 고백하려는 사실이 너무나 예상외라는 이유로 함부로 나를 왜곡하여 환자의 이름을 빌리지 말'라는 부탁과 '생애 유일의 기념비가 될 몇 장의 유서를 두고 미친 사람의 헛된 잠꼬대로 취급하지 말'라는 당부가 적혀 있을 뿐이다. 이는 앞으로 서술할 내용의 진실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 외에 작품에서의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2.2 첫 번째 살인

이 작품은 두 번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된다. 물론 첫 번째 미쓰무라는 확실하게 '그 환약'으로 독살하게 되고, 두 번째는 혼다를 같은 방법으로 독살하려 하다가 '정신적 파산'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을 독살하는 자살의 방법을 택한다. 이같이 두 번의 살인을 하게 되는 동인을 작품 속에서 찾다면 다음의 문장일 것이다.

나는 당시 열여섯 살의 소년이었고 아키코는 아직 열 살의 소녀였다. 오월 모일 우리는 아키코 집의 잔디밭 등나무 넝쿨 밑에서 즐겁게 장난치며 놀고 있었다. 아키코는 나에게 한쪽 다리로 오랫동안 설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안 된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왼손을 느려 뜨려 왼쪽 발가락을 잡고는 오른 손을 들고 균형을 잡아가며 한참이나 한쪽다리로 서 있었다. 머리 위의 보라색 등나무 꽃은 봄의 햇살을 흔들며 늘어지고 그 밑에 아키코는 조각상처럼 꼼짝 않고 멈춰서 있었다.

마치 사진으로 찍은 듯한 한 컷이 지금까지 그녀를 '잊을 수 없'게 한 까닭이고, 그의 마음 속 깊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준 동기이며, 그 후에도 아키코에 대한 사랑이 '점점 격렬함'을 더해가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작품에서는 '그녀를 생각하며 거의 공부는 전폐하게 되었어도 나의 소심함은 숨긴 마음을 끝까지 한마디도 토로하지 못했다'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기타바타케의 아키코에 대

한 사랑은 첫사랑임과 동시에 또 짝사랑이기도 하다.

첫사랑과 짝사랑에 대한 특징을 고려하면서 이 작품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기타바타케는 왜 살인과 자살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사랑의 상대였던 아키코는 왜 이 작품에서 전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지 수궁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작품이 기타바타케와 아키코의 사랑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아키코의 존재감이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야기의 주인공은 기타바타케, 미쓰무라, 혼다 세 사람을 축으로 전개된다.

어떠하든 간에 기타바타케가 살인과 자살을 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앞에서도 언급한 '등나무 넝쿨 밑에서 즐겁게 장난치'던 그 한 순간이다. 이 한 컷의 사진과 같은 장면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것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오랜 사قم도 아니다. 어쩌면 한나절, 그 중에서도 '왼손을 느려 뜨려 왼쪽 발가락을 잡고는 오른 손을 들고 균형을 잡아가며 한참이나 한쪽다리로 서 있었'던 그 포즈가 전부이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첫사랑이라고 할 만한 감정의 교류가 있었다는 정황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아무리 남자의 첫사랑의 심리가 첫사랑의 여자에게 집착하고, 후유증이 오래가고, 인생을 다 바치기도 한다고 하더라도, 작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깊이가 없는 어설픈 첫사랑, 더욱이 작품 전체를 볼 때 기타바타케가 아키코를 짝사랑한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기타바타케가 살인을 한다는 것, 그것도 두 번씩이나 살인을 한다는 작품의 구성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요시모토 류메이는 「『개화의 살인』에서는 닥터 기타바타케의 짝사랑의 근대성이 여성을 과도하게 미화했기 때문」⁴⁾이라고 한다.

이 같은 경향으로 작품을 끌어갔다는 것은 작품의 구성상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다. 아쿠타가와는 이전의 소위 예술지상주의적인 작품에서도 이 같은 경향을 보인 적이 적지 않았다. '예술가는 무엇보다도 작품의 완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에 봉사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예술 그

4) 吉本隆明(1977) 「芥川竜之介における虚と実」『国文学』5月号、学灯社、p.30.

외』에서 그의 예술관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예를 들면 아쿠타가와와의 소위 예술지상주의 작품인 『희작삼매』, 『지옥변』, 『불교인의 죽음』, 『무도회』가 모두 이런 경향을 보인 작품이다.⁵⁾

이 작품에서는 살인사건의 동력이 되는 첫사랑의 강력함이 보이지 않는다. ‘흐림과 맑음이 일정하지 않은 감정의 하늘 밑에서 혹은 울고 혹은 웃고 망망하게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이라는 묘사로 볼 때 그가 유학을 떠나는 스물하나까지 6년 동안 사랑의 고백이 없는 짝사랑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짝사랑은 그야말로 남녀 상호간에 교감이 없는 상태이든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빛나간 경우를 말한다. 이런 상호의 교감이 없는 짝사랑의 상태에서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를 전개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전개된다. 첫사랑을 방해하는 첫 사건이 가업인 의학을 배우러 런던으로 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이다. 가부장적 구조가 지배적이었던 메이지기의 사회상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유학 거부는 아마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런던으로 떠나는 것이 단순히 아버지의 명령 때문이었을까. 일본이 구화정책에 온 힘을 쏟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런던 유학은 개인에게는 바로 출세를 의미하는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타바타케의 유학은 자신이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엄숙한 우리들의 가정은 그러한 기회를 주는데 인색함과 동시에 유교주의의 교육을 받은 나도 불순한 이성교제에 대한 비방을 겁내 끝없는 이별의 슬픔을 품은 채 책가방을 들고 훌쩍 영국의 수도로 떠난다’는 묘사에서 ‘불순한 이성교제’라는 단어는 매우 애매모호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문맥으로 보아 유교주의 교육을 받은 기타바타케가 아키코와의 자유연애를 ‘불순한 이성교제’로 본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논리와 감정의 모순을 드러내는

5) 하태후(2012) 「아쿠타가와와의 『불교인의 죽음』의 문제점」 『일어일문학연구』 제 82집 2권, 한국일어일문학회, pp.195-196.

말이다. 게다가 이것을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된다. 아키코의 입장에서는 기타바타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불순한 이성교제'인데다가,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영국의 수도로 떠난다'는 일방적인 통보는 기타바타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운 것이지 아키코 자신과는 아무런 의논도 양해도 없는 일방적인 것으로,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꺾어버야 하겠다는 아무런 확신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모멸감마저 주는 처신이다. 아키코가 이를 받아들이고 순순히 남자를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착각이다. 문제의 단서가 일어나는 시점은 실로 여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바타케가 영국에서 유학하는 삼 년 동안 아키코는 결혼하고 만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국 유학 삼년간……'에서부터 '아버지 병원의 일개 애송이 의사가 되어 수많은 환자의 진료에 쫓겨서 따분한 의자를 떠나지 못하게 했다'는 실연자의 처절하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이 노정되어 있지만, 이 또한 아키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연민의 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문장은 단지 기타바타케 자신이 살인 사건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작품의 중간에 '여기에 이르러서 나는 실연의 위안을 신에게 구했다.'로 시작하여 '아키코의 행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정에 북받쳐 흐느껴 운 것을 이야기해도 좋다.'로 끝나는 매우 이질적인 문장이 삽입되어 있다. 아마 '유학중에 귀의한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또 이 신앙에 의한 치유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만일 그들에게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내 위안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약간의 고민도 없어지리라'고 믿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헨리 타운젠드씨와 나는 '신의 사랑을 논하고 그 위에 인간의 사랑을 논한' 그 내실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된다. 인간의 사랑(관능적 사랑)과 신의 사랑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관능적 사랑은 자신의 필요와 관심을 충족시켜줄 상대방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선별적이다. 상대방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느

끼면 느낄수록 관능적인 사랑은 점점 더 서로를 소유하고자 할 것이다. 반대로 본성상 관능적이지 않는 기독교적 의미의 신적인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 바로) 그것이다. 신적인 사랑은 상대방만을 위한 전인격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적이어서도 안 되고 차별적이어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상호성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고 기만당하고 거절당할 가능성에서 자유롭다.⁶⁾

선교사 헨리 타운젠드씨와 나는 ‘사랑’이야기는 기타바타케의 감정을 잠시 묻어두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사카이 히데유키는 ‘기타바타케 기이치로는 윤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위선자이다.’고 한다. 왜냐하면 ‘〈신체성〉(자연)을 부정하고 극복해야 할 악을 간파하는 기타바타케는 윤리적인 인간이고, 〈신체성〉의 분출을 막는 뚜껑으로서 그리스도교 윤리를 구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윤리는 그의 과잉한 〈신체성〉을 막는 데는 너무나도 무력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따라 아키코에 대한 애육이라는 그의 〈자연〉을 극복하고, 「육친적 애정」을 품는다고 하는 「사랑의 새로운 전향」을 얻었다고 기타바타케는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진실은 아키코에 대한 애육이라는 그의 〈자연〉으로 향했던 것을 두려워하여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명목에 자기의 〈신체〉를 숨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⁷⁾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나중에 가서 변화하여 ‘결단코 신에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손으로 누이동생 아키코를 색마의 손에서 구조해야만 한다.’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 이유는 지금 아키코가 결혼한 상대인 미쓰무라가 ‘짐승’이고, ‘색마’라는 것이다. 이렇게 미쓰무라를 ‘짐승’이고 ‘색마’라고 단정 짓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메이지 11년 8월 3일 료코쿠다리 근처의 요정에서 미쓰무라를 만났을 때 그는 ‘오른쪽에 기생을 안고 왼쪽에 동기를 거느리며, 듣

6) http://www.reportworld.co.kr/report/data/view.html?no=276964&pr_rv=rv_relate_view (검색일 2013. 8. 9)

7) 酒井英行(1993) 『芥川竜之介 作品の迷路』有精堂、p.145.

기에도 거북한 외설적인 속된 노래를 크게 부르며, 오만하게 남량선의 갑판 위에서 흠뻑 취한' 멧돼지 같은 행동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타바타케의 사고에 결정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물을 이원 대립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운은 '이분법은 존재가 불안한 이들의 특징이다.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반대편에 적을 만들어야 자신의 존재가 확인되는 까닭이다.'⁸⁾고 한다. 확실히 문제는 미쓰무라나 그와 같이 살고 있는 아키코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바타케의 사고에 있음이 분명하다.

사카모토 마사키는 '유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타바타케박사의 인물상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이원적 대립을 근거로 하여 조형되어 있는 점에 하나의 큰 특징이 존재한다. 기타바타케박사를 둘러싼 이원적인 상극은 유교주의와 그리스도교 신앙과의 모순에서, 쾌락 지향에 대한 금욕적 자세의 충돌, 자작에 대한 우의의 의식과 자신의 애정의 달성 원망과의 대립, 그리고 시대에 가득한 물질주의에 대한 정신주의의 상극까지 폭 넓게 간취된다.'⁹⁾고 기타바타케의 사고의 특징에 이분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위의 두 논자의 학설을 더하면 기타바타케가 미쓰무라를 짐승이니 색마니 하면서 비난하는 쾌락주의와 물질주의는, 신의 사랑과 그 위에 인간의 사랑을 논하는 금욕적 자세와 정신주의와는 차원을 달리하여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이분법적인 것으로, 이는 기타바타케의 존재가 불안하다는 것의 증명이 될 뿐 아니라, 가상적으로 미쓰무라를 반대편의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된다. 아직 이 시점에서 혼다자작은 수면위에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적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

'신에 의지하지 않고' 지신의 손으로 이키코를 구하겠다는 결심은 이내 곧 미쓰무라를 살해하는 실행의 단계로 옮겨지는데, 기타바타케는 살인의 동기를 '나는 믿는다. 살인의 동기는 발생 당초부터 결단코 질투의 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불의를 벌하고 부정을 제

8) 김정운(2013.6.7.) [김정운의 敢言異說] 이분법은 나쁜 것이다! 『조선일보』, p.A31.

9) 関口安義編(2003) 『芥川竜之介新辞典』 翰林書房、p.98.

거하려는 도덕적 분노에 있다는 것을.’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미 그가 존재한다는 것이 세상을 문란하게 하는 이유임을 알았고, 그를 제거하는 것이 노인을 살리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임을 알았다. 여기서부터 살해의 의지가 서서히 살해 계획으로 변화해 갔다.’고 한다. 기타바타케가 미쓰무라를 살해하는 동기나 살해 계획 모두가 철저히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기타바타케가 그의 행동을 ‘도덕적 분노’라고 하여 그리스도교의 신적인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는 ‘질투’라는 용어의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 혹은 관능적 사랑의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 형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타바타케의 ‘도덕적 분노’의 실상은, 지인인 신문기자를 통하여 그들의 관계를 듣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력하게 집착하고 몰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강박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미쓰무라와 아키코의 부부관계가 어떠한지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조금은 알 수 있다. 그것은 사립탐정이나 다름없는 지인인 신문기자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만, 그들의 첩보에 의하면 ‘이 무뢰한 남편이 일찍부터 온량하고 정숙한 부인으로 일컫는 아키코를 대할 때는 노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첩보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의 호불호를 제삼자가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 보다는 이런 사실들은 오히려 살인을 계획하는 기타바타케의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작품은 나쓰메 소세키의 『그 후』와 『마음』의 주제를 계승하였다¹⁰⁾고 하는 주장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아쿠타가와가 『개화의 살인』을 쓸 때, 『마음』을 염두에 두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개화의 살인』과 자매편의 관계에 있는 『개화의 남편』을 보면 그 주제는 『마음』의 선생님이 말하는 「자유와 독립과 자신」이 메이지의 아쿠타가와에 의한 전개처럼 생각된다.’¹¹⁾고 할 수 있다.

10) 菊地弘編(2001) 『芥川竜之介事典増訂版』 明治書院、p.111.

우선 『그 후』에서는 ‘그 자신에게 특유한 사색과 관찰의 힘’으로 메이지 일본사회와 인간의 암흑을 발견하고 그들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는 다이스케와, 활동가로 현실사회에 참여하여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를 수 있다는 확증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히라오카가, 이 『개화의 살인』에서는 기타바타케와 미쓰무라로 대비를 보인다. 일찍이 어린애 같은 의협심으로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억누르고 친구의 동생이었던 미치요를 히라오카와 결혼시킨다. 그러나 재회 후에 다이스케는 자신 속에 사랑의 불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미치요를 히라오카로부터 빼앗는다.

작품 『그 후』의 서두에서 자기만족으로 느긋하게 살던 다이스케는 소설의 말미에서는 상처투성이의 영혼이 되어 떨썹한 정신에 광기가 흐르는 듯 보인다. 이것은 관능적 사랑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화의 살인』에서 기타바타케의 ‘도덕적 분노’ 역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력하게 집착하고 몰두하는 광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후』와 차이점이라면 살인을 감행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개화의 살인』의 기타바타케가 그의 그리스도교 신앙에도 불구하고 더욱 관능적 사랑에 집착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마음』은 어떠한가. 『마음』은 상편 「선생님과 나」, 중편 「양친과 나」, 하편 「선생님과 유서」의 세 편으로 되어 있다. 죽음에 이르는 인간심리의 변화과정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 면에서 『개화의 살인』의 기타바타케가 ‘정신적 파산’을 피하기 위하여 자살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마음』의 중편 말미에는 임종 직전의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던 차에 선생님께서부터 두꺼운 편지가 배달된다. 그 첫머리에 “이 편지가 당신 손에 도달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오”라는 말을 본 ‘나’는 역으로 달려가 도쿄행 기차에 뛰어든다. 이는 『개화의 살인』의 말미의 ‘혼다자작 각하 그리고 부인, 저는 이러한 이유로서, 당신들이 유서를 손에 넣었을 때는 이미 사체가 되어 침대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라는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된다.

하편인 「선생님과 유서」에서 선생님은 일찍이 부모와 사별하고

11) 桶谷秀昭(1981) 「芥川と漱石——明治の意味」 『国文学』5月号、学灯社、p.30.

숙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데 그 숙부에게 재산을 횡령당하여 타인을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만다. 그러나 도쿄에서의 학생시절에 만난 선생님도 역시 연인을 얻기 위해서 친구 K를 배신하는 처지가 된다. K는 자살하고 선생님은 기나긴 세월동안 죄의식에 시달리게 된다. 상편에서 내가 갖고 있던 불가해한 느낌이 하편의 선생님의 고백으로 눈 녹듯이 풀리는 등 추리소설풍의 수법을 취하고 있다.

하편인 「선생님과 유서」는 전체적으로 『개화의 살인』과 유사점이 많다. 특히 기타바타케와 미쓰무라와의 관계보다는 기타바타케와 혼다자작과의 관계가 선생님과 K와의 관계와 유사하다. 선생님과 K의 사이에 아무런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기타바타케와 혼다자작의 관계도 순수하다. 그러나 그 사이에 관능적 사랑이 개입될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인다는 점에서 같은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도덕적 분노’라는 이유로 아키코의 행복을 위하여 미쓰무라를 죽이겠다는 결의는 한층 굳어져, 익년 신토미자에서 미쓰무라에게 환약을 먹인 결과 미쓰무라는 귀로의 마차에서 병사하고 기타바타케는 축배를 든다. 그러나 그 축배가 그렇게 환희에 찬 축배였던가 하는 점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환희인가 비애인가, 나는 그것을 명확히 할 수 없었다. 단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내 전신을 지배하고 잠시라도 나를 편안히 앉아있지 못하게 했다.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이 있었다. 장미꽃이 있었다. 그리고 그 환약 상자가 있었다. 거의 천사와 악마를 좌우에 두고 기괴한 향연을 연 것처럼…….” 기타바타케는 신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지만 그에게 남아 있는 죄의식은 그의 심상에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3 두 번째 살인

미쓰무라는 부검의에 의한 사인이 뇌출혈로 판명되고, 기타바타케는 이제 완벽하게 누이동생 아키코를 색마의 손에서 구조해낸다. 그러면 영국 유학 삼년간 꿈꾸었던 ‘장미꽃 미래 속에 다가올 우리

의 결혼 생활'은 가능해지는가.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새로운 연적이 나타난다. 그 사람은 자신과는 너무 절친한 친구인 혼다자작이다. 그러나 미쓰무라를 살해하기 이전까지는 혼다자작이 미쓰무라보다 더 무서운 연적이라는 것이 수면에 떠오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쓰무라의 살해는 명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색마에게서 이키코를 구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색마에게서 아키코를 구출하는 것의 심리의 근거에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 기타바타케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이때 처음으로 혼다자작과 아키코가 이미 약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쓰무라 교헤이의 황금의 위세에 굴복되어 결국 파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 마음이 어찌 분개함을 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작과 아키코 부부의 연을 이어주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연히 미쓰무라에게 시집와서 아직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하늘의 뜻이거나 아니면 내 계획을 돕기 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런 짐승 같은 높은 벼슬 아치를 살해하여, 친애하는 자작과 아키코가 하루빨리 행복한 생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입가에 머금은 미소를 멈출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이 기타바타케의 진심일까. 과연 혼다자작과 이키코의 행복을 빌었을까. 남녀의 사랑이 그렇게 '신의 사랑'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와중에서도 '그날 밤 인력거를 타고 가시와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혼다자작과 아키코의 옛 언약을 생각하며, 일종의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낀 것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는 곧이어 들어날 혼다자작과 자신의 사랑의 삼각관계를 예고하는 암시이기도 하다. 사실 이기적인 사랑은 이 삼각관계에서 명확하게 그 마각을 드러낸다.

미쓰무라를 살해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미쓰무라의 살해 후에 그는 만족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곧이어 기타바타케는 '행복한 수개월이 경과함과 동시에 점차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증오할 유혹과 싸울 운명에 접근했다. 그 싸움이 얼마나 더없이 가혹했는가. 어떻게 한발 한발 사지에 몰아넣었는가. 도저히 여기에 서술할 용기가 나지 않'을 지경에 이르고 만다.

‘친애하는 자작과 아키코가 하루빨리 행복한 생활’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미쓰무라를 살해하고는 이제 와서 10월 ×일 일기에 자작이 나를 돌려세워 놓고 아키코를 두세 번 만난 것에 대하여 심히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오면 기타바타케의 아키코에 대한 사랑이 짝사랑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미쓰무라가 죽었으면 아키코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당연히 기타바타케다. 그러나 지금 아키코의 혼담은 혼다자작과 이루어지지 않는가. 또 아키코도 기타바타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또 11월 ×일의 일기에는 혼다자작과 함께 아키코를 방문하고는 ‘그러나 마음속에 오히려 멈출 수 없는 비애를 느끼는 것은 무슨 일인가.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괴로웠다.’고 한다. 이것은 소세키의 『그 후』의 다이스케가 미치요를 히라오카에게 양보한 그 의협심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2월 ×일의 일기에는 자작과 아키코가 결혼할 의지가 있음을 알고 ‘다시 아키코를 잃어버릴 것 같은 이상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는 관능적 사랑이 가지는 명백한 소유의 욕망이다.

그리고는 6월 12일의 일기에는 작년 오늘 미쓰무라를 죽인 일을 생각하며 그 살인이 누구를 위한 살인인지를 되묻고 있다. ‘나는 누구를 위해 미쓰무라를 죽였는가? 혼다자작을 위해서인가, 이키코를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인가.’ 자문은 할 수 있었겠지만 자답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스스로 그 동기를 파악할 수는 없다. 더욱이 8월 ×일의 일기에는 ‘내 마음에는 거의 나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괴물을 잉태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피력하고 있다.

11월 ×일의 일기에는 ‘자작은 결국 아키코와 결혼식을 올렸다. 내 자신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고 있다. 미쓰무라를 살해하기 이전, 아키코와 미쓰무라가 결혼 생활 중이던 때는 ‘친애하는 자작과 아키코가 하루빨리 행복한 생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입가에 머금은 미소를 멈출 수 없었다.’고 하던 기타바타케의 이 생각은 아키코와 자작

의 결혼에 대하여 분노를 느낌으로 두 사람의 결합에 대한 희망이 스스로의 기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만다.

여기에 의문점 하나를 더한다면 아키코의 생각은 조금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키코는 자신의 논리와 감정이 없는, 오로지 남자에 의해서만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페미니즘 비평가로부터 충분히 지적받아 마땅한 점이다. 설령 메이치라는 시대상황이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아키코가 미쓰무리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혼다자작과 재혼한다는 사실은, 여성이 연애를 통하여 결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키코의 기타바타케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아키코는 기타바타케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기타바타케는 아키코를 짝사랑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 미쓰무라를 살해하는 데는 명분이 뚜렷하였다. 그것은 '불의를 벌하고 부정을 제거하려는 도덕적 분노'였다. 동기와 목표가 뚜렷하였다. 무찔러야 하는 적도 분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 그를 살해하는 것은 간단했고, 살해 후에도 그는 만족했다. 그러나 혼다자작의 경우에는 아예 동기와 목표가 사라졌다. 자작을 살해해야 할 정당성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12월 ×일의 일기에서 '나는 지난 밤 자작을 살해하는 악몽에 시달렸다. 종일 가슴의 불편함을 버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적과의 불의의 싸움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리고 2월 ×일의 일기에는 '아아 나는 이제 와서 처음으로 알았다. 내가 자작을 살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이미 이전에 미쓰무라를 살해한 그 수법으로 자작을 살해하고자 수없이 생각한 결과로 얻은 결론이다. 혼다자작을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자신의 아키코에 대한 집착 즉 관능적 사랑이 가지고 있는 애고이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혼다자작을 살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애고이즘 때문이라면 미쓰무라를 살해한 것은 정말 '도덕적 분노' 때문이었을까. '만일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혼다자작을 죽인다면 어디에서 미

쓰무라를 도살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가.’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그러나 그 답은 너무나 명백하다. ‘도덕적 분노’ 운운 하는 것은 피상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고 이를 천착해 들어가면 미쓰무라를 살해한 이유 역시 혼다자작을 살해하고자 하는 이유와 동일하게 근저에는 아키코에 대한 관능적인 사랑, 즉 에고이즘이 숨어 있었을 뿐이었다는 증명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어지는 문장에서 기타바타케는 ‘그를 독살한 이유가 내가 자각할 수 없는 이기주의에 잠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 인격, 내 양심, 내 도덕, 내 주장은 완전히 소멸할 것이다. (중략) 나는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것이 정신적 파산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믿고 있다. 때문에 내 인격을 수립하기 위해’ 오늘밤 자살을 한다는 것이다. 에비이 에이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기타바타케에게 미쓰무라의 살해는 스스로의 존재의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혼다의 존재로 인한 아키코와 자신과의 관계를 지순한 것으로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거기에서 기타바타케의 불행은 시작된다. 혼다를 살해한다는 것은 일회성에서부터 반복되는 일상성 중에 그 자신이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미쓰무라 살해의 동기까지 에고이즘에 의해서 흐려지게 하는 것이 된다. 〈인격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의 경우 이 같은 사태를 피하는 소극적인 방법일 것이다.¹²⁾

또 신토 스미타카도 ‘정신의 유지와 파산이 길항하는 극을 아쿠타가와는 기타바타케 닥터에게서 그려낼 수는 없었다. 정신의 파산에 위축되어 육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쟁이의 변명밖에 쓸 수 없었다. 여기에 〈인격의 수립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닥터의 훌륭함이 아니라, 이기라는 자신의 정체에 두려움을 느껴 죽음을 서두르는 딱한 남자의 모습이 있을 뿐이다.’¹³⁾고 지적한다.

‘에고이즘이 없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의 일생만큼 괴로운

12) 三好行雄編(1981) 『芥川竜之介必携』 学灯社、p.97.

13) 進藤純孝(1978) 『伝記芥川竜之介』 六興出版、p.339.

것은 없다. (중략) 나는 에고이즘을 떠난 사랑의 존재를 의심한다.’ 고 실연사건을 거친 후에 아쿠타가와가 썼던 이 편지는 아마도 신의 사랑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오로지 관능적 사랑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의 남녀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소세키의 『그 후』의 다이스케와 히라오카, 『마음』의 선생님과 K와의 관계에서 적출되는 에고이즘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시미즈 시케루는 ‘미쓰무라, 기이치로 공히 『메이지』적 인물의 표리일체라고 할 수 있는 두 측면을 각각 대표하는 인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이치로에 동정하면서도 이 두 사람을 함께 작품 속에서 죽이고 있는 점에 아쿠타가와에 있어서 『메이지』인에 대한 시니컬한 풍자적인 시각의 획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¹⁴⁾는 평가는 소세키의 『그 후』와 『마음』에도 공히 통용될 수 있는 시대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세키의 『마음』에서는 K는 자살하고 선생님은 기나긴 세월동안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는데, 작품에서 K는 자살할 때에 무엇 때문에 자살한다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선생님과 K가 아가씨를 사이에 두고 일어난 삼각관계 때문에 K가 자살한 것은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K는 일체 이를 말하지 않고 선생님이 ‘나’에게 보낸 편지에 의해서 겨우 이것이 밝혀진다.

그런데 『개화의 살인』에서는 기타바타케 자신의 자살 이유를 혼다자작과 아키코에게 직접 알리면서 ‘다만 죽음에 이르러 여러 저주받을 반생의 비밀을 고백한 것은 당신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미련 없이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기꺼이 당신들의 증오와 연민을 물어뜯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자작과 아키코는 무엇을 느낄까. 아마 자작과 아키코는 금시초문이라는 황망함을 감추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하여 아키코에게 자신의 집착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작과 아키코를 평생토록 괴롭히는

14) 清水茂(1969) 「芥川竜之介と明治」 『国文学 解釈と鑑賞』34卷4月号、至文堂、p.23.

일이 된다. 이것은 죽음 후에도 두 사람을 괴롭히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사실상 세 번의 에고이즘이 나타나있다. 첫 번째는 '도덕적 분노'를 가장한 미쓰무라의 살해에서 너무나 분명히 나타난다. 두 번째는 자작과 아키코의 '행복한 생활'을 위장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분노로 바뀌는 에고이즘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자살을 통하여 두 사람에게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두 사람에게, 특히 아키코에게 평생의 짐을 지워주는 에고이즘의 절정으로 나타난다.

기타바타케가 생각한대로의 이타본위의 깨끗한 행위였다면 아키코를 향하여는 고백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혼다와 아키코에게 고백하고 있는 점에 기타바타케의 자각할 수 없는 「이기주의」가 노정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는 혼다부부에게 보내는 유서를 쓰고 있지만, 기타바타케가 자기의 「반생의 비밀」을 고백하고 싶었던 상대는 당연히 아키코에게였다. 아키코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키코에게 전하고 싶다는 것이 진실한 동기였음에 틀림이 없다.¹⁵⁾

사카이 히데유키는 이 유서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 따라서 이 작품을 '나는 에고이즘을 떠난 사랑의 존재를 의심한다.'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문학의 밑그림 혹은 그의 정신세계의 원 풍경이 반복해서 작품세계에 나타나며, 『개화의 살인』 또한 그 정신세계의 원 풍경이 또 하나의 작품으로 나타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개화의 살인』에서는 주인공 기타바타케가 두 번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된다. 첫 번째는 미쓰무라를 확실하게 독살하게 되고, 두 번째는 혼다자작을 같은 방법으로 독살하려 하다가 '정신적 파산'을

15) 酒井英行(1993) 『芥川竜之介 作品の迷路』 有精堂、p.148.

면하기 위하여 자신을 독살하는 자살의 방법을 택한다. 이같이 두 번의 살인을 하게 되는 동인을 작품 속에서 찾는다면 아키코와 '등나무 넝쿨 밑에서 즐겁게 장난치'던 그 한 순간이다. 이 한 컷의 사진과 같은 장면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것의 원인을 제공한다.

첫 번째 살인 이야기이다. 기타바타케는 열여섯 살 때, 사촌인 간로지 아키코에 연심을 품지만 소심한 탓에 심정을 털어놓지 못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가업인 의학을 잇기 위하여 런던에 유학하게 된다. 삼년간의 유학 중에 아키코는 은행장 미쓰무라 교헤이의 금권에 의해서 그의 처가 된다. 실연의 위로를 그리스도교의 신앙에서 구하기도 했지만 메이지 11년 8월 3일의 료고쿠다리의 불꽃놀이 때, 기타바타케는 미쓰무라와 자리를 같이하고 그 품성의 속악함을 알고 '불의를 벌하고 부정을 제거하려는 도덕적 분노'로 그를 독살한다.

기타바타케가 그의 행동을 '도덕적 분노'라고 하여 그리스도교의 신적인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는 '질투'라는 용어의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기타바타케의 '도덕적 분노'의 실상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분노이고, 지인인 신문기자에게 그들의 관계를 듣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력하게 집착하고 몰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 살인 이야기이다. 한편 자식이 없기 때문에 미쓰무라가를 떠난 아키코는 이전부터 서로 사랑하던 혼다 자작과 결혼한다. 행복한 친구의 모습을 보고 다시 자신의 마음속에 살의가 움터오는 것을 느낀 기타바타케는 '아아 나는 이제 와서 처음으로 알았다. 내가 자작을 살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이라고 한다. 이는 이미 이전에 미쓰무라를 살해한 그 수법으로 자작을 살해하고자 수없이 생각한 결과로 얻은 결론이다. 혼다자작을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자신의 아키코에 대한 집착 즉 관능적 사랑이 가지고 있는 에고이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혼다자작을 살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에고이즘 때문이라면 미쓰무라를 살해한 것은 정말 '도덕적 분노' 때문이었을

까. '만일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혼다자작을 죽인다면 어디에서 미쓰무라를 도살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가.'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그러나 그 답은 너무나 명백하다. '도덕적 분노' 운운한 것은 피상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고 이를 천착해 들어가면 미쓰무라를 살해한 이유 역시 혼다자작을 살해하고자 하는 이유와 동일하게 근처에는 아키코에 대한 관능적인 사랑, 즉 에고이즘이 숨어 있었을 뿐이었다는 증명밖에 되지 않는다.

'에고이즘이 없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의 일생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중략) 나는 에고이즘을 떠난 사랑의 존재를 의심한다.'고 스스로의 실연사건을 거친 후에 아쿠타가와가 썼던 이 편지는 아쿠타가와와의 문학의 밑그림 혹은 그의 정신세계의 원풍경으로 반복해서 작품세계에 나타나며, 『개화의 살인』 또한 그 정신세계의 원풍경의 또 하나의 바리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사실상 세 번의 에고이즘이 나타나있다. 첫 번째는 '도덕적 분노'를 가장한 미쓰무라의 살해에서 너무나 분명히 나타난다. 두 번째는 자작과 아키코의 '행복한 생활'을 위장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분노'로 바뀌는 에고이즘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자살을 통하여 두 사람에게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두 사람에게, 특히 아키코에게 평생의 짐을 지워주는 에고이즘의 절정으로 나타난다.

아마도 이 작품에서는 신의 사랑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오로지 관능적 사랑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의 남녀의 관계를 『개화의 살인』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소세키의 『그 후』의 다이스케와 히라오카나 또 『마음』의 선생님과 K와의 관계에서 적출되는 에고이즘의 문제가 이 작품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참고문헌

- 김정운(2013.6.7.) [김정운의 敢言異說] 이분법은 나쁜 것이다! 『조선일보』, p.A31.
하태후(2012) 「아쿠타가와와 『봉요인의 죽음』의 문제점」 『일어일문학연구』 제82집

2권, 한국일어일문학회, pp.195-196.

- 海老井英次(1990)『作品論 芥川竜之介』双文社、p.127.
楠谷秀昭(1981)「芥川と漱石——明治の意味」『国文学』5月号、学灯社、p.30.
菊地弘編(2001)『芥川竜之介事典増訂版』明治書院、p.111.
酒井英行(1993)『芥川竜之介 作品の迷路』有精堂、p.145、p.148.
清水茂(1969)「芥川竜之介と明治」『国文学 解釈と鑑賞』34巻4月号、至文堂、p.23.
進藤純孝(1978)『伝記芥川竜之介』六興出版、p.339.
関口安義編(2003)『芥川竜之介新辞典』翰林書房、p.98.
三好行雄(1976)『芥川竜之介論』筑摩書房、p.45.
三好行雄編(1981)『芥川竜之介必携』学灯社、p.97.
吉田精一(1958)『芥川竜之介』新潮社、p.122.
吉本隆明(1977)「芥川竜之介における虚と実」『国文学』5月号、学灯社、p.30.

http://www.reportworld.co.kr/report/data/view.html?no=276964&pr_rv=rv_relate_view
(검색일 2013. 8. 9)

성 명(한 글) : 하 태 후
(한 자) : 河 泰 厚
(영 문) : Ha, Tae-Hu
논문영어제목 : A Study on 《The Murder of Civilization 》 of R.
Akutagawa
소 속 : 경일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
e-mail : thha636@hanmail.net / thha@kiu.ac.kr

투 고 일 : 2013년 12월 27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2월 4일